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구는 어떤 의미인가?

이승규가 들려주는

‘세계의 노래’

〈13〉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



작곡가 이승규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전 세계는 팬데믹 상태로 들어갔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지상태로 보내야 했다. 공연을 하는 나 역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맞이했다.

연초에 계약했던 공연과 사업은 모두 취소, 축소됐고 그나마 진행한 공연 또한 연말이 돼

서야 숨통을 틔 수 있었다.

현재도 2020년의 연장선이다.

코로나 확진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이제 일상이 돼가고 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우울감과 답답함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고, 경제사정은 좋지 않아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1년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시점이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재앙으로 넘어가고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있다. 지난해를 봐도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과 긴 장마, 현재는 한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지구 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속도로 증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4℃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 증가, 가뭄의 심화를 의미한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2070년대에

는 한반도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것이라는 기후위기를 보여준다.

2009년 발표된 기후 위기 시계에서 한국은 10시47분을 나타냈다. 이는 24개국의 평균인 10시37분보다 빠른 수치로 매우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이 지수는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식량, 에너지, 각국 정부의 위기관리 수준 등 6개 요소를 통합해 측정된 것이다. (출처, 다음백과)

기후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는 19세기 산업혁명 때 비해 0.9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이미 상승한 온도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해수면은 19세기에 비해 59cm 상승했고, 강수량은 20%나 증가했다. 그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공존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지구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 인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

예술가로서 지구와 환경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을 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구상하고 작곡하고 있는 곡이 있다. 이 곡은 6월 5일 환경의 날에 초연 할 예정이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라는 제목으로 작곡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냥이 어려워져 동족을 잡아먹는 모습이 발견된 북극곰, 모래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암수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분석된 바다거북, 밀렵으로 인해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는 검은코뿔소 등.

곡은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멸종이 되어버린 동물을 주제로 선정했으며 마지막 곡은 ‘인간’ 또한 멸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 곡 구성은 1곡 백두산 호랑이, 2곡 북극곰, 3곡 자이언트 팬더, 4곡 검은 코뿔소, 5곡 상괭이, 6곡 반달가슴곰, 7곡 바다거북, 8곡 인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8곡 인간에서는 관객이 가져다 준 쓰레기를 모아 피아노 안에 집어넣어 이상해져버린 상태로 연주하는 즉흥 퍼포먼스로 구성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각한 아름다운 소리인 지구가 인간의 쓰레기로 인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예술가는 사회의 방향과 깨달음을 주는 선구자이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 파급력이 강하고 메시지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재난으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해, 올해만큼은 우리에게 지구는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승규·광주작곡마당 대표>

‘뿌리가 전설하니 사계절 꽃이 피다’

조선훈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내달 10일까지 ‘2020년 올해의 작가상’展

조선훈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이 2020년 제2회 ‘올해의 작가상’뿌리가 전설하니 사계절 꽃이 피다’展을 다음달 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광주·전남 문화예술 관계자들에게 총 16명의 모교 출신 작가 추천을 받아 최종 심사를 거쳐 4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김자이, 이인성, 정정하, 최희원 작가로 평소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화단에서의 영향력이 기대되는 작가들이다.

김자이 작가는 ‘휴식’이란 단어 연구를 시작한

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정적인 휴식’과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등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동적인 휴식’이 있음을 연구하며 집중할 수 있는 몇 가지 휴식 방법을 찾아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인성 작가는 현실과 가상의 장면을 오가는 이미지를 속에 독특한 장치인 주황색 점을 배치함으로써 은유적, 상징적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정하 작가는 빛을 가둬 기록하는 것으로 작가의 심상, 인간의 심상을 빛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최희원 작가는 생성과 소멸, 생과 사, 순환은 살아있음이며 광대한 우주 안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함을 나무의 숨결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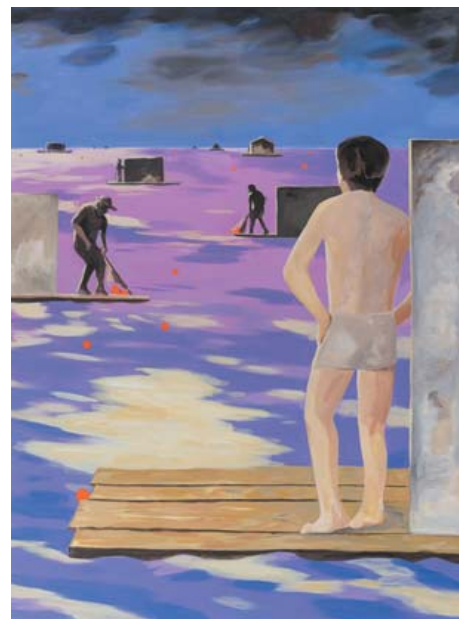
조소식 조선훈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동문 작가들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모교 출신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작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후학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술관에 방문하기 힘든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전시도 예정돼 있다.

/김다미 기자



이인성 작 '지치않는 달-섬'



이인성 작 '지치않는 달-섬2'

물류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 CONVEYOR 제작 전문업체 현대콘베어[주]



▲ A/L 상하차콘베어



▲ 파워벨트콘베어



▲ 카펫콘베어 (벨리어형, ABS)



▲ A/L 사다리 콘베어 (벨리어형, ABS)



▲ 자바라콘베어 (벨리어형, ABS)



▲ A/L 프로파일 수평콘베어



콘베어 자동화 설비 제작 전문 / 물류자동화의 선두 기업
콘베어벨트 / 고무판 / 벨트접착 / 콘베어부품 / 콘베어제작

www.hd-c.co.kr (쇼핑몰 운영중)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쉽고 빠르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90도 커브콘베어



▲ A/L 체인상하차콘베어



▲ 나무체인 상하차콘베어(통형)

신속확장이전

현대콘베어(주)는 1993년에 창업하여 27년동안 콘베어 제작 전문업체로, 일반기계요소 부품에서 콘베어 부품을 전문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적 향상과 규격화를 지향하며 물류자동화의 선두기업으로 현대콘베어(주)만의 노하우와 기술로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ISO)에 준하는 완성된 품질을 생산 개발하여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콘베어 자동화 설비 제작 전문 / 물류자동화의 선두 기업



현대콘베어[주]
HYUNDAI CONVEYOR

대표전화 : 1688-3708

61094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32번길 50
AS전화 : 062-511-0541 팩스 : 062-511-0543
E-mail : jang511@hanmail.net